

보도시점

배포이후

배포

2026. 1. 30.(금) 9시

“정부 주도에서 민간 자율로”... 세계한상대회, 이제 한상이 직접 키를 잡는다

- 제56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개최, 민간 주도로 운영 규정 개정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한상경제권 구축)

- 전 세계 재외동포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축제인 ‘세계한상대회’가 정부 주도의 운영 틀을 벗고, 한상들이 직접 설계하고 이끄는 ‘민간 자율 운영 체계’로 탈바꿈하게 되었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 주관으로 1.29(목) 개최된 제56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회의 민간 자율성 확립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회 운영 규정이 채택되었다.
-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이번 제56차 운영위원회 결정이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라 대회의 주권을 한상들에게 온전하게 돌려주고, 민간 주도의 ‘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’을 실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”고 강조했다.
- 이번 제56차 운영위원회에서 바뀐 새로운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우선, 세계한상대회를 이끄는 핵심 의결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 운영위원 중에 선출하게 된다. 그 간 재외동포청장이 맡아 왔던 운영위원직이 민간 운영위원에 이양되면서 한상이 직접 이끄는 대회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.

- 또한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회도 한상들이 직접 이끌게 된다. 운영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기업전시회를 주최하는 동포경제단체 혹은 전문기관을 직접 선정, 기업전시회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.
- 기업전시회를 관련 분야 노하우를 갖춘 동포경제단체 등 전문 기관에 위탁,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외에도 세계한상대회 내 한상자문위원회와 미래혁신위원회를 신설, 대회 내 자문 및 제언 역할 기능을 부여한다. 이로써 원로 및 차세대 동포경제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동포경제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.

□ 대회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바뀐 규정에 따라 오는 2월 말 회의를 열고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 이경아 (032-585-3220)
		담당자	사무관 황인용 (032-585-3293)

